

수도권에 쏠린 ‘대학 재정지원’

전남대 지난해 지원금 187억4700만원…상위 30곳 중 16위

수도권·경상권 대학 독식…상위 20개 대학에 지원금 45%

포항공대 1인당 수혜액 827만원…전남대 7.5배·조선대 16배

교육 분야 양극화가 극심하다.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지역별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가 하면, 학생들이 받는 혜택도 대학간 격차가 심각하다. 여기에 소득 양극화로 인한 사교육비 격차도 여전하다. 교육계 안팎에서 대학·교육 정책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학, 지역별 격차 드러난 대학재정지원사업=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최근 교육부의 ‘2016년 대학 재정지원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대는 지난해 대학에 지원된 정부 지원금 총 1조864억원 중 187억4700만원을 받아 ‘대학재정지원사업 상위 30개 대학’ 중 16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대는 고교교육정상화지원사업,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 대학특성화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 BK21플러스사업 등에 선정되면서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 중 유일하게 상위 30개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학역량강화 10개 사업에 대한 전국 4년제 대학(일반대 189·산업대 2·교육대 10개 등 201개) 지원 현황을 분석했다. 10개 사업은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BK21플러스 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대학특성화사업(CK) ▲프라이머리 ▲대학 인문역량강화사업(CORE)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여성 공학인재 양성사업 ▲고교교육 정상화 지원사업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 등이다.

정부 지원금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점은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대(501억6400만원), 성균관대(344억8300만원), 경북대(331억1200만원), 부산대(309억3900만원), 고려대(271억6200만원), 연세대(253억2100만원), 영남대(238억6700만원), 순천향대(235억7100만원), 한양대(에리카 232억200만원), 충남대(230억1000만원) 등 상위 10개 대학에 지원된 금액만 2964억9000만원이다. 지난해 전체 지원금의 27.3%에 이른다. 상위 20개 대학으로 확대하면 지원 액수는 총 4897억50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45.1%에 달해 불균

■ 대학재정지원사업 지원금 현황

순위	대학명	지원금액
1	서울대	50.164
2	성균관대	34.483
3	경북대	33.112
4	부산대	30.939
5	고려대	27.162
6	연세대	25.321
7	영남대	23.867
8	순천향대	23.571
9	한양대(에리카)	23.202
10	충남대	23.010
16	전남대	18.747

형이 두드러진다.

지역별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 상위 50개 대학 중 ▲서울·경기권(16개·32%) ▲경상권(19개·38%)에 걸쳐 전라권(7개·14%) 지원 현황이 미흡했다. 이 때문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평가를 통한 선별적 지원 방식을 유지하면서 대학 경쟁력 확보라는 큰 그림을 그리는 대신, 지역·대학간 격차와 갈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학생 1인당 수혜액도 차이 커=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비에 대한 학생 1인당 수혜금액을 환산한 점도 눈길을 끈다.

포항공대의 경우 대학 재정지원사업 수주액(121억7800만원)에 따른 학생 1인당(재학생 1472명) 지원금이 82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전남 대학들중에는 동신대가 학생 1인당 159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집계돼 가장 많았다. 전국 대학 중에는 12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호남대 155만원, 전남대 110만원, 조선대 52만원 등도 학생 1인당 지원금 상위 50개 대학에 포함됐다. 대학에 따라서 학생들이 받는 혜택이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소득 양극화, 사교육 격차 여전=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보고서 ‘저출산 대책 평가 VI(교육)’에

■ 학생 1인당 지원금 현황

순위	대학명	지원금액
1	포항공대	8.27
2	경운대	4.28
3	건양대	3.24
4	서울대	3.04
12	동신대	1.59
14	호남대	1.55
35	전남대	1.10
48	조선대	0.52

(자료: 사교육걱정·김병욱 의원실)

따르면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월 사교육비 격차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4년의 경우 36만9000원이던 격차가 2014년에는 49만9000원 등으로 소득 차이로 인한 사교육비 규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 및 사교육비 지출이 하위 분위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소득 양극화 및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통계청 자료를 인용, 월평균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가구와 100만원대인(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배, 사교육 참여율은 2배 가량 차이가 난다고 분석했다.

한편, 광주지역 학부모들은 지난 2015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로 22만8000원, 전남은 16만5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전체 사교육비 17조 8000억원의 56.5%인 10조 693억원 규모)은 최근 3년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초당대 ‘챌린지 프로젝트’ 인기

해외 문화체험비 80% 지원…250명 모집에 800명 몰려

초당대의 방학을 활용한 ‘글로벌 챌린지 프로젝트’가 눈길을 끌고 있다.

글로벌 챌린지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해외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체 비용의 80%를 대학이 부담한다. 올해 예산은 8억원으로, 전년도(7억원)보다 늘었다.

올해는 겨울방학 기간, 20개 팀을 비롯, 재학생 250여명의 싱가포르·미국·중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의 문화체험을 지원하겠다는 게 학교측 구상이다.

학생들 스스로 독창성 있는 여행 일정을

세울 수 있는데다, 대부분의 경비를 학교측이 부담하는 점 때문에 지원자만 800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에는 18개 팀이 아시아를 비롯, 유럽, 미주 지역에서 5박6일~14박15일 동안 문화체험을 진행했다.

초당대 관계자는 “글로벌 챌린지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해외를 둘러보면서 관심 있는 분야를 심화 학습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동강대 ‘바리스타 실습실’ 개소



동강대는 최근 대학 인문사회관에 ‘바리스타 실습실’을 마련, 커피 로스터기와 에스프레소 머신, 핸드드립 기구 등을 갖췄다. 최근 (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 한국커피자격검정평가원의 ‘바리스타 2급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검사장’으로 승인받는데 따른 것으로, 호텔관광과 학생들의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동강대 제공)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광주·전남 8곳 선정

학교·기업 오가며 이론+실무교육…금파공고·영광공고 등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학교에서는 이론교육과 기초실습을, 기업에서는 체계적인 현장교육을 받고 졸업 후 곧장 취업할 수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2017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대한 심사 결과, 모두 38개 사업단 132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독일·스위스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방식인 ‘도제식 교육훈련’(Dual System)을 국내 현실에 맞게 도입한 제도다.

고교 2학년부터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현장 중심 직업교육 훈련을 받는다.

광주에서는 기계 분야 거점학교인 금파공고를 중심으로 광주자연과학고가 참여 학교로 선정됐다.

전남의 경우 기계 분야 거점학교를 영광공고가 맡고 담양공고·전남기술과학고·나주공고가 참여토록 하는 계획이 포함됐고 순천효산고는 조리 분야 단일학교로 선정됐다. 전남미용고는 (사)대한미용사회를 운영기관으로 하는 산업계주도형 사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금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눈,비오는날 9,900원)

13,0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